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6월 7일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호리 순로(堀 俊郎)

오이타현과 인연이 깊은 여러분, 오이타현에서 유학하셨던 여러분, 업무 및 시찰 등으로 방문해주셨던 여러분, 오이타에 흥미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 생생한 오이타의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오이타와 관련있는 여러분들과 꾸준히 소통해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이타현을 방문해주신 해외 관광객

올해 골든위크의 현내 관광은 지진의 영향으로 관광시설의 방문객 수가 전년대비 52.6%, 숙박객 수는 64.7%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5월에는 크루즈 여객선의 입항과 방일 수학여행 등으로 인한 방문이 이어졌고, 유럽 미디어, 싱가포르 Visit Japan 대사를 초청하여 오이타현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크루즈 여객선 3척 기항

대형 크루즈 여객선 ‘골든 프린세스’가 벳푸시에 기항하였습니다.

홍콩, 대만, 태국, 미국 등 24개국의 2,152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관광버스 40대에 나뉘어 벳푸시 및 유후시를 관광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레전드 오브 더 시즈’, ‘보이저 오브 더 시즈’ 여객선이 기항하였습니다.



대만 학생들의 고등학교 방문

대만의 장경 고급공업 가사직업 학교의 학생 16명이 현립 히타미쿠마고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 만들어진 부의 환영 연주와 장경학교 학생들의 퍼포먼스 등으로 교류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벳푸시, 유후시의 료칸 호텔 영업 안내 (5월 30일 현재)

벳푸시 료칸호텔조합 가맹료칸 112곳 중 111곳의 시설이 영업 중이며, 유후인 온천료칸조합 가맹시설 91곳 중 82곳의 시설이 영업 중입니다.

투어리즘오이타 홈페이지 참조 <http://www.visit-oita.jp/news/detail/43> <http://www.visit-oita.jp/news/detail/42>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6월 7일

오이타 100% 즐기기! 키츠키 성하마을의 기모노 체험



키츠키시라고하면 가장 먼저 기모노를 입고 언덕 위에 서있는 여성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처음으로 기모노 체험을 하기 위해 큐슈의 작은 교토라고 불리는 키츠키에 다녀왔습니다. 키츠키까지는 오이타역에서 특급 소닉열차를 타고 약 25분, 기모노렌탈샵인 와라쿠안까지는 키츠키역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로 키츠키 시청 앞 정류장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와라쿠안에 들어서면 다양한 디자인과 색깔의 기모노가 눈에 들어옵니다. 기모노는 본인의 신장에 맞는 사이즈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이어서 기모노에 어울리는 오비(허리띠)를 고릅니다. 가방과 헤어 악세서리, 우산 등 본인이 원하는 소품까지 다 고르고 나면 키츠키시(着付師)께서 정성스럽게 기모노를 입혀주십니다. 오비는 허리에 딱 맞게 조여 숨쉬기가 힘들고, 걸음걸이에도 신경쓰게 되는 점이 한복과 대비되었습니다.

기모노를 다 입고나면 마지막으로 스태프가 기모노에 어울리는 게타(신발)를 추천해주고 팸플릿 지도를 펼쳐보이며 산책 코스를 설명해줍니다. 저처럼 키츠키를 처음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헤매지않고 마을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며 길을 나서면 키츠키에서 제일 유명한 언덕이 나옵니다. 북쪽의 무사마을로 가는 스야노사카와 남쪽의 무사마을로 가는 시오야노사카입니다. 이 곳은 키츠키에서도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여, 기모노를 입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 언덕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이곳의 모습에서 샌드위치형 마을이라는 말이 탄생하였습니다.

시오야노사카를 오르면 키츠키성하마을자료관이 나옵니다. 기모노차림으로 방문하면 입장료가 무료이며, 이 자료관 이외에도 다른 공공관광문화시설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츠키 성하마을은 그리 규모가 큰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설을 견학하다보면 시간이 눈깜짝할새에 지나갑니다. 자료관 뒤쪽으로 올라가면 전망대가 나오는데, 모리에만과 야사카강, 키츠키성이 한눈에 들어오며 탁 트인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기모노가 잘 어울리는 마을이라 불리는 만큼 고풍스러운 키츠키 성하마을을 산책하고 있으면 마치 에도시대에 와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키츠키에서의 기모노체험은 여행객으로 봄비는 다른 관광지와는 달리, 키츠키만의 고유한 운치를 느긋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6월 7일

오이타 100% 즐기기! 키츠키 성하마을의 기모노 체험



와라쿠안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접수는 14시까지입니다. 또 7월부터는 기모노 대신 유카타를 체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와라쿠안의 작년 외국인 방문객 비율은 54%로 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순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에 맞게 사무국에는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고 하니, 일본어를 하지 못해도 기모노체험을 하는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한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 팸플릿이 구비되어 있으며, 팸플릿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면 산책코스에 따라 4개국어로 된 음성가이드가 흘러나옵니다. 참고로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은 기모노데이로 다양한 특전 및 이벤트가 열립니다.

와라쿠안의 기모노 대여료는 2400엔. 가방, 헤어악세서리, 우산은 각각 100엔으로 다른 유명 관광지 기모노 대여료보다 매우 저렴합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키츠키에서 여러분도 기모노체험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와라쿠안 (和楽庵)

<오이타 소식>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5년도 기준의 오이타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77개국에서 온 3,380명의 유학생이 오이타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도부현별 인구 10만명 당 유학생 수는 교토부를 제치고 2년만에 일본 1위가 되었습니다.

- ①도도부현 별 인구 당 유학생 수 전국 1위
- ②유학생 수는 전국 10위
- ③대학 별 유학생 수는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대학이 전국 4위
- ④현내 출신 국가 별 유학생 수는 1위 중국 944명, 2위 한국 626명, 3위 베트남 441명

히타가와비라키 관광축제

제 69회를 맞이한 히타가와비라키(川開き:강놀이 개시) 관광축제가 히타시 중심부 및 미쿠마가와 강 주변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음악 대 퍼레이드”, “물고기향 히타돈타쿠 카니발”, “관광축제 뮤직페스티벌” 등이 개최되었고, 2일 간 약 1만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2016년도 6월 호부터 What`s Up, OITA! 의 다국어판이 제작됩니다. 앞으로는 오이타의 다양한 모습과 소식을 한국어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취재와 기사작성, 번역 및 편집까지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국제교류원 김진아